CHANGE

삼정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2025 OCTOBER
Vol.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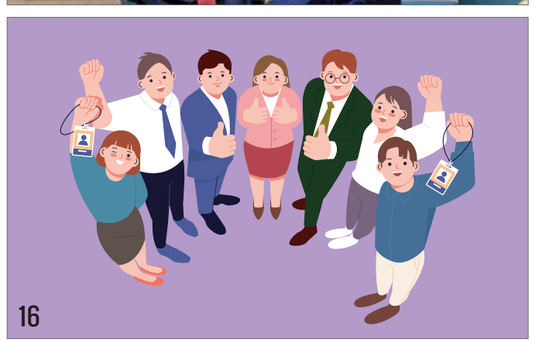
변화를 넘어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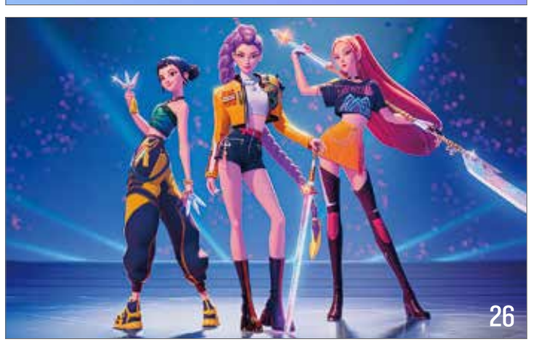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KPMG 뉴스레터 + OCTOBER 2025

CONTENTS

Vol 273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스테이블코인,
신뢰로 완성하는 미래 금융의 퍼즐 Part.3

06 **Market Reader**
저성장 시대 오프라인 유통,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전환

08 **Team Story**
가업승계 A to Z 총괄 파트너!
가업승계지원센터

10 **Client+**
성인 교육 콘텐츠 기업 '1호 상장사'
데이원컴퍼니

12 **Expert's Advice**
AI 신기술로 살펴본
2025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는?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행복한 일터

16 **인재양성소**
Jump Up!
새로운 출발선에서, 더 큰 성장을 위한 각오

20 **컬처한스푼**
삼정인이 추천하는
인생 드라마는?

22 **마음온도+**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경제금융 멘토!
'배움의 다리'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인생 최고의 자격증

26 **心 Care**
수치심에서 노래로 :
정신건강의 날에 다시 쓰는 치유의 언어

28 **Samjong News**
AI Summit 2025 外

Channel 웹페이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Channel'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끊임없는 혁신의 시대,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삼정KPMG는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변화의 길 위에서 함께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호 표지에는 이러한 삼정KPMG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담았습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벽호(031-946-098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스테이블코인, 신뢰로 완성하는 미래 금융의 퍼즐 Part 3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앞둔 지금,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 선점이 요구된다. 삼정KPMG는 스테이블코인 자문팀을 운영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구조 설계부터 실행 로드맵까지 '올인원(All-in-one)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는 스테이블코인 시리즈 3편으로,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회계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운영적 준비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고변동성의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주목받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운영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만 스테이블코인은 지속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준비금의 상환성과 발행자의 자본 요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준비금의 건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과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환매 요구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준비금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발행사는 준비금을 단기 국채, 현금, 예금 등으로 구성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발행사의 자본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위험 대비 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준비금의 분리 보관, 외부 감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준비금이 발행사의 일반 운영 자금과 혼합되어 운용될 경우, 투자자와 이용자는 해당 자산의 실질적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부실화나 자금 유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준비금은 신탁 계좌 등 별도의 계좌에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감사 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과 투명한 보고가 필수적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운영적 준비 과제

❶ 준비금과 자본 요건	•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구성, 즉시 상환성 확보 필수 • 발행사의 자본 요건 및 위험 대비 자본 유지 중요
❷ 분리 보관·외부 감사·공시	• 준비금은 운영 자금과 분리해 신탁 계좌에 보관 • 독립적 외부 감사 및 정기적 공시로 신뢰 확보 • 실제 발행량과 유통량 검증 필요
❸ 투명한 정보 공개	• 준비금 구성, 상환 정책, 보안 체계 등을 지속 공개 • 규제와 시장 신뢰의 기초
❹ AML/KYC 및 보안 프레임워크	•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방지 위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 스마트컨트랙트 검증 필요 •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투명성 균형 (예: 영지식증명 기술 활용)
❺ 회계적 분류 문제	• 금융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등으로 해석 가능하나 명확한 기준 없음 • 국내 회계 기준은 미비, 향후 법제화와 함께 정립 필요

Source: 삼정KPMG

정보 공개의 투명성은 규제의 기초

투명한 정보 공개는 모든 규제와 절차의 출발점이다. 발행자는 준비금 구성, 상환 정책, 기술적 위험 관리 계획, 보안 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이 누적될수록 스테이블코인과 이를 둘러싼 금융 생태계는 더욱 건전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AML)/ 고객 확인(KYC)과 기술적 보안 프레임워크의 강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초월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상, 불법 송금,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거래소는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이상 거래 모니터링, 스마트 컨트랙트 검증, 다중 인증 등의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적 설계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부 플랫폼은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활용해 거래 내역은 검증 가능하면서도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회계적 분류 : 금융자산,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회계적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다.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계약상 현금 흐름 권리와의 연계성을 강조해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법적·계약적 권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면 단순 투자나 보유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공정가치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해 실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재판매용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보는 견해도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회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향후 법제화 방향에 맞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신뢰' 위에서 완성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혁신과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다. 하지만 그 미래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엄격한 자본 요건, 철저한 감사·공시, 보안 강화, 그리고 회계 처리의 명확화라는 신뢰의 체계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시장 참여자, 규제기관, 이용자 모두가 이 원칙을 공유하고 실천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금융 퍼즐의 핵심 조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CONTACT US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최연택 상무
Tel. 02-2112-2740
E-mail. yeontaekchoi@kr.kpmg.com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저성장 시대 오프라인 유통,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전환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견해와 함께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며 유통산업은 저성장 고착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의 일상화로 인한 구조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저성장 위기를 맞은 국내외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생존 전략을 살펴본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소비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물가 상승과 실질 구매력 감소, 디지털 소비 확산 등은 소비 행태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압박에 직면해 있다. 과거 대규모 점포 확장만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은 소비자 가치의 변화, 온라인 유통과의 치열한 경쟁, 비용 증가의 부담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유통 포맷 다변화로 소비자 접점 재설계

소비자들의 지출 행태가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이벤트성 단순 할인 행사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없게 됐다. 초저가형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 포맷이나 균일가 매장 같은 구조적 저가 모델이 각광받는 이유이다. 독일의 알디(Aldi)는 PB(Private Brand) 제품과 단순화된 상품 구색 및 운영 구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일본의 교무슈퍼(Gyomu Super)는 제조·생산 기반을 내재화하며 압도적인 저가격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의 파이브빌로우(Five Below)는 '10대들의 놀이터'라는 콘셉트의 5달러 이하 제품을 파는 균일가숍으로 소비자를 공략 중이다.

동시에 소형 특화 점포의 확산도 이어지고 있다. 시간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적 소비 패턴과 유통업체의 매장 운영 비용 절감 니즈가 맞물린 결과이다. 또한 소형 점포는 브랜드 경험과 소비자 접점 강화를 위한 실험 무대로도 유용하다. 일반 매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관찰하고 피드백을 적용할 수 있다. 글로벌 홈퍼니싱업체 이케아(IKEA)는 기존 교외 대형 매장 중심의 출점 전략에서 벗어나 최근 도심 내 접근성을 강화한 도시형 소형 매장 '플랜 앤 오더 포인트(Plan and Order Point)'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이온그룹은 편의점 크기의 도심형 소형 슈퍼마켓 '마이 바스켓(My Basket)'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큰 매장'이 아니라, 생활 반경 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과 맞춤형 경험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흥 시장 진출하며 성장 동력 모색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선진국 내수 시장은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성장성이 제한적이다. 이에 신흥시장을 겨냥한 해외 진출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 구조에 더해 소득 수준 향상 및 도시화 가속으로 유통업체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일본 이온그룹은 베트남 시장에 집중하여 대형 쇼핑몰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소비자 기반을 확보하고 중소형 슈퍼마켓 체인까지 운영하며 베트남 유통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생존 전략

본업의 재정비, 유통 포맷 다변화	글로벌 확장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리테일 미디어로 비즈니스 다각화 도모
•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 구조를 재정비하고 저가 제품 판매에 특화된 포맷 전개 • 소형 점포의 유연성, 근거리 입지, 운영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특화 점포 설계	• 새로운 소비 시장 선점을 도모하고 신규 출점 기회 모색 •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을 통한 공급망 효율성 향상 및 글로벌 소싱 역량 확충	• 매장 인프라를 수익 창출 채널로 전환하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수익성 제고 노력 • 소비자 위치 정보에 기반해 쇼핑에 유용한 콘텐츠를 송출하며 고객 경험 강화

오프라인 점포 포맷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고객 접점과 가치 창출 방안 모색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회원제 창고형 마트라는 특유의 포맷을 지닌 미국 코스트코는 국가별 소비문화와 가격 구조에 맞춘 현지화 전략으로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가는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편의점업계부터 대형마트업계까지 신흥국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CU, GS25 등 국내 대표적인 편의점 브랜드는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마트는 몽골·필리핀·라오스 등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리테일 미디어, 판매 공간에서 광고 미디어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매장은 더 이상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다. 소비자와 브랜드가 직접 만나는 접점이자 강력한 광고 미디어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유통 기업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자산을 활용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리테일 미디어는 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리테일 미디어는 단순한 수익 다각화를 넘어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확장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광고 생태계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미국 월마트는 '월마트커넥트(Walmart Connect)'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 광고 인벤토리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거두고 있다. 일본 훼미리마트는 이토추상사와 공동으로 게이트원(Gate One)이라는 이름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매장 내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로 광고 비즈니스를 강화 중이다. 국내에서도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CJ올리브영 등이 리테일 미디어 진출을 본격 검토하거나 실행하려는 모습이다.

저성장 시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다. 내수 소비 정체, 비용 압박, 경쟁 심화라는 현실은 냉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 패턴 변화와 기술 혁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저성장의 파고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미래 지향적 전략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유통·소비재산업본부
김시우 전무
Tel. 02-2112-0893
E-mail. siwookim@kr.kpmg.com

경제연구원
차윤지 수석연구원
Tel. 02-2112-6914
E-mail. yoonjicha@kr.kpmg.com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가업승계 A to Z 총괄 파트너! 가업승계지원센터

투명성이 강화되는 과세 환경 속에서 가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승계하고, 복잡한 상속·증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 경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된 가업승계의 A to Z를 총괄하는 가업승계지원센터를 만나본다.

상속, 증여, 가업승계: 전문가 자문으로 사전 계획 필요

최근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이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주해 현지에서 상속·증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는 비거주자 간 해외 자산 이전에 과세되지 않는 현행 세법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 계속 변경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는 생전 증여 시 자식이 효도를 소홀히 하거나 자식 간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자식은 부모가 특별한 건강 문제를 겪지 않는 이상 먼저 상속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가족의 화합과 장기적 재정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생전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세무를 넘어 미래까지 설계하는 가업승계 컨설팅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는 단순한 상속·증여 자문을 넘어, 국내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터치(High-touch)' 컨설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무 절감이나 승계 구조 설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승계 이후 조직 안정화, 성장 전략, 인적 자원 자문까지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세무자문 부문과 재무자문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가업 유지'와 '기업 매각'이라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세무자문 부문은 가업 유지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승계 구조 설계, 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경영권 이전을 전제로 한 지배구조 재편, 주식 이동 시나리오 설계, 공제 활용 극대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한다. 이는 단순한 절세 전략을 넘어, 경영권 이전의 정당성과 안정성 확보, 후계자 체계 구축, 사후 조직 정비, 매각 대안 마련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이다.

또한 KPMG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자산 보유자의 국제 상속·증여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다. 142개국, 27만 명 이상의 전문가를 활용해 크로스보더 자산 구조 설계부터 현지 세법 분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앞으로도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는 단순한 세무 절감이 아닌, 고객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지켜가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업승계가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되도록 돕고자 한다.

가업승계지원센터 주요 서비스

1. 상속·증여세 효과적인 절세 전략
- 상속·증여 관련 효과적 절세전략 수립
- 자금출처 대응 방안 마련
- 주식명의신탁 해소 자문
- 주식이동 세무 문제 해결

2. 상속·증여세 신고·조사대응 및 불복
- 상속·증여세 신고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지원
- 상속·증여세 조세불복 자문
- 유권해석 질의 및 법령 개정 지원

3. 개인자산관리 및 재무자문
- 국내 및 해외소재 자산 취득·보유 및 활용에 대한 세무 자문
-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수립
- 개인 제세 절세 장·단기 계획수립 자문
- 개인 제세의 신고 및 사후관리 지원

4. 가업승계자문
- 가업승계 장·단기 전략수립 지원
- 가업승계 방안 실행 지원
- 가업승계 목적 주식평가 업무
- 승계 재원마련 자문

5.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 일감 증여세 신고
- 일감 유권해석 질의 및 법령 개정 지원
- 일감 증여세 절세 방안 자문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업승계지원센터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소개한다면?

"경험 노하우로 가업승계 통합 서비스 제공"

한원식 부대표 (센터장)
wonsikhan
@kr.kpmg.com

우리 센터는 단순한 세무 절감에 그치지 않고, 경영권 이전의 정당성과 안정성, 후계자 체계 구축, 사후 조직 정비 등 승계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 신뢰가 갑니다.

"국제 상속·증여 이슈까지 해결"

이상길 전무
sangkillee
@kr.kpmg.com

국내뿐 아니라 KPMG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자산, 국제 상속·증여 이슈까지 원스톱으로 자문해 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142개국, 27만 명의 전문가 풀을 기반으로 복잡한 크로스보더 자산 구조 설계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

서윤정 Director
yoonjungseo
@kr.kpmg.com

가업 유지와 기업 매각(M&A) 등 고객 상황에 맞춘 맞춤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세무·재무 각 부문별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승계 여부 판단부터 매각 절차, 자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1

2

3

4

DAY1 COMPANY

성인 교육 콘텐츠 기업 '1호 상장사' 데이원컴퍼니

데이원컴퍼니는 국내 성인 교육 콘텐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직장인·자영업자·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웹 디자인, 재무제표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성인 교육 콘텐츠 업계 최초의 상장사가 됐다. 이번 호에서는 상장 이후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하며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이원컴퍼니를 소개한다.

다채널 포트폴리오 갖춘 종합 콘텐츠 기업

직무 교육에서 출발한 데이원컴퍼니가 B2C·B2B·B2G2C·글로벌로 이어지는 다채널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핵심은 인하우스 제작 체계에 있다. 기획부터 촬영·편집, 운영, 고객 응대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해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B2C 부문은 실무 중심의 '패스트캠퍼스', 크리에이티브 분야 '콜로소', 어학·부업 콘텐츠 '마이라이트(가벼운 학습지)', 취업 지원 특화 '제로베이스 스쿨' 등 뚜렷한 타깃과 정체성을 지닌 브랜드로 구성된다. 모든 콘텐츠가 자체 제작 시스템에 기반해 만들어져, 브랜드별 포지셔닝과 고객 경험을 정교하게 구현한다. B2B 및 B2G2C 부문은 이러한 B2C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확장을 실현하고 있다. B2C에서 검증된 콘텐츠를 추가 강사료·마케팅비·제작비 부담 없이 B2B·B2G2C·글로벌로 재전개함으로써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구조가 완성됐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도 기술 기반 효율화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부터 글로벌 콘텐츠 판매에 필요한 영상 번역, 자막, 더빙 등 수작업 공정을 AI 기술로 대체하며, 제작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또한, LLM과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 주제를 다룬 교육 콘텐츠를 빠르게 라인업에 포함시키며 시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매출 중 AI 관련 콘텐츠 비중은 56%를 차지했다. 이는 AI 트렌드가 본격화된 2023년 1월 대비 약 7배 성장한 수치다.

일본, 미국 등 글로벌 교육 콘텐츠 선도

데이원컴퍼니는 국내에서 축적한 콘텐츠 제작 역량과 직무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공략에 나섰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수요가 증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오프라인 학원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데이원컴퍼니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선제 대응해 일본 시장에 진입, 빠르게 입지를 다졌다. '콜로소'를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 수출 전략은 한국에서 검증된 콘텐츠의 현지화와 일본 오리지널 콘텐츠의 공동 기획·제작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전개됐다.

일본 시장 성과를 기반으로, 영어권 시장으로 확장하며 미국 진출을 본격화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인 교육 콘텐츠 시장이지만, 콘텐츠 품질은 시장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현지 수요 분석 기반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전개했고, 콘텐츠 적합성과 차별화를 확보해 왔다. 2025년 6월에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성과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일본 시장은 2021년 진출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 약 170%의 성장률(CAGR)을 기록했고, 영어권 시장 역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의 CAGR을 달성했다. 2024년 기준 전체 해외 매출은 약 150억 원에 달하며, 2025년 2분기에는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세에 힘입어 더욱 속도감 있게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다른 시장으로 역수출하는 'N-to-N 전략'으로 글로벌 교육 콘텐츠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AI 교육 콘텐츠의 퍼스트무버

2025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소버린 AI 개발과 전 국민 AI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민관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 네이버, LG, SKT, NC, 업스테이지 컨소시엄 등 5개 팀이 1차로 선발됐으며, 2027년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2개 컨소시엄이 결정된다. 데이원컴퍼니는 업스테이지 컨소시엄 파트너사로 참여해 국산 AI의 대국민 활용 기반(AX: Accessible AI Experience) 확산을 담당한다. AI 교육 콘텐츠 제작·유통에서 독보적 성과를 쌓아온 데이원컴퍼니는 민간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해 의미가 크다. 아직은 1차 선정 단계이지만, 이번 참여를 통해 데이원컴퍼니는 정부·기업·개인 등 다양한 주체를 위한 AI 교육 콘텐츠를 리드할 역량을 입증했으며,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AI 콘텐츠 시장에서 전략적 기회와 이정표를 마련하게 됐다.

전략적 M&A 추진하며 변화 대응

데이원컴퍼니는 내재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M&A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단발성 거래가 아닌, 자사 사업 구조(▲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강사 네트워크·IP 자산, ▲B2C·B2B·B2G·글로벌로 확장된 시장 기반)에 부합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인수 대상을 선별한다. 이 기준에 따라 콘텐츠 기획 역량 확장, 신규 장르 IP 확보, HR·교보재·MRO·외주대행 등 교육 인접 B2B 영역까지 탐색 중이다. 실제 사례로, 2025년 6월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엔오에이(NOA)' 인수를 통해 장르 확장과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의 진화를 모색했다. 앞으로도 데이원컴퍼니는 명확한 기준과 사업 구조에 기반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M&A를 지속 추진하며, 콘텐츠 기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3. 마이라이트 학습지 **2.** 이강민 대표 **4.** 데이원컴퍼니 라운지 **5.** 제로베이스 청년 일자리 **6.** 어학 퍼블리싱 사업 **7.** 일본 사업 연 결제액 10억 엔 돌파 **8.** 콜로소 재팬, 동양미술학교와 MOU 체결 **9.** 제로베이스 취업 보장 스쿨 **10.** 패스트캠퍼스 AI트렌드

5

6

7

8 10

9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I 신기술로 살펴본 2025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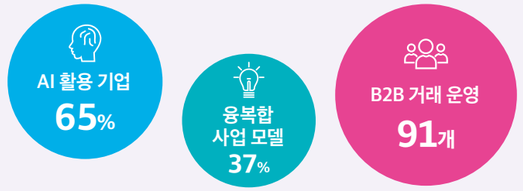
금융 산업은 급격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핀테크(Fintech)가 있다. 핀테크 산업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술 도입 등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핀테크 전문가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신기술에 관한 규제 환경 등에 대해 들어보려 한다.

Q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최근 투자 및 성장 현황은 어떠한가요?

국내외 핀테크 시장은 지정학적,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투자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4년 들어 투자 규모 및 건수의 감소폭이 완화되며 시장 안정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2% 감소하며 1,178억 달러에 그쳤으나,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9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조정 국면 속에서도 뛰어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한국이 속한 ASPAC 지역은 글로벌 투자 비중의 소폭 증가 및 투자 규모 감소세 완화를 보이며 시장 회복의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핀테크 산업 내 투자 섹터별 현황은 AI, 디지털 자산, 인슈어테크 등 일부 섹터에서 2025년 연말까지 전년 대비 투자 규모 회복이 예상되며, 레그테크 등 기타 섹터에서도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및 업무 자동화 솔루션이 주목받아 AI 역량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이 주목할 키워드는 AI, 융복합, B2B 기반 사업 모델 다각화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글로벌 Top 100 핀테크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 중 65%가 AI를 활용 중이고, 37%가 이커머스, 모빌리티, 물류 등 타 산업의 데이터를 접목한 융복합 사업 모델을 운영 중이었으며, 91개 기업이 B2B 거래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내 핀테크 기업은 AI 역량을 내재화하고,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B2B 중심의 사업 모델 다각화를 통해 전략적 방향을 재정립하여, 향후 투자 회복 국면에서의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Top 100 핀테크 투자 기업 특징



핵심 키워드: AI · 융복합 · B2B

Q 현재 국내 핀테크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디지털 신기술은 무엇인가요?

국내 핀테크 산업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IoT, 바이오메트릭의 6대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중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AI는 인식 AI → 생성형 AI → 에이전틱 AI → 피지컬 AI 순서로 발전하며, 금융권에서는 AML/KYC, 사기 탐지, 언더라이팅 등 리스크 관리 자동화와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에도 점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산업 내 AI 기술의 부상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동일한 현상인데, 2025년 상반기 글로벌 Top 100 핀테크 투자 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를 유치한 100개 기업 중 65%가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49%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핀테크 산업 내 AI 기술력 기반 사업모델 고도화가 핀테크 기업의 생존에 더욱 주요하게 작용할 것을 시사하며, AI 기술력 보유를 단순 프로덕트 고도화뿐 아니라 투자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국내 핀테크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존 프로덕트 내 생성형 AI, 나아가 에이전틱 AI를 탑재할 수 있는 영역의 유무와 기존 업무 프로세스 내 AI 기반 자동화 및 효율화가 가능한 영역을 식별해 내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Q 핀테크 산업의 디지털 신기술을 둘러싼 정책 및 규제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들을 살펴봤을 때, 최근 주요 정책 및 규제는 AI, 오픈뱅킹,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AI 영역은 금년 제정된 한국의 AI 기본법과 영국의 AI 법안, EU의 AI법 등 각국에서 AI 혁신 촉진 및 안전성 확보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오픈뱅킹 영역 역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등 오픈파이낸스로의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영역의 경우 2025년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며, 미국의 GENIUS 법 통과를 시작으로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핀테크 산업 내 분야별 규제가 정교화되는 동시에,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혁신 역시 주목이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종주국인 영국의 경우 최근 3년간 디지털 샌드박스,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PISCES 샌드박스, Supercharged 샌드박스를 연달아 출시하며 규제를 완화한 실험의 장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의 성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권 등 신기술 분야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변화가 빠른 것이 핀테크 시장의 성격인 만큼,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역시 핀테크 기업의 육성을 위한 생태계 마련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Q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던데,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어떤 행사인가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오는 11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양재 aT센터에서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7회차를 맞이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국내 금융 관련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지자체 등 85개 전시부스가 조성되고, 해외진출 및 글로벌 교류 촉진을 위한 글로벌관에 주한미국대사관, 일본핀테크협회, 홍콩무역발전국을 비롯한 기관들이 부스에 참여해 투자유치와 비즈니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운데 총 1만 2,500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해외 유수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해외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고 사업모델 홍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삼정KPMG Digital본부는 2019년 1회 행사부터 매년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핀테크 리빌딩(Rebuilding) 전략- AI·해외진출·융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AI 신기술 기반 해외시장 GTM 전략 재편'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행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Digital 김세호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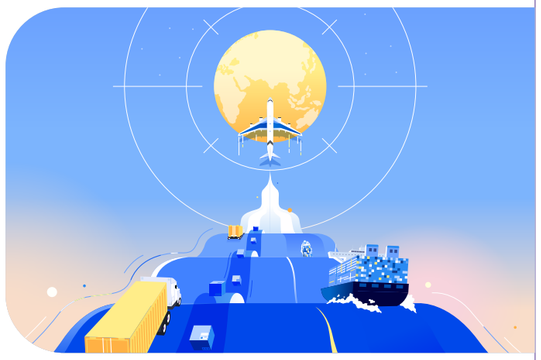
Tel. 02-2112-7879
E-mail. seihokim@kr.kpmg.com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신조어를 배워보는 시간!
이번 호에서는 최근 급부상 중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변화하는 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개념을 살펴본다.



글로벌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시대!

최근 글로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어요. 바로 구독 없이 무료로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이하 FAST)' 랍니다.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IPTV, 케이블TV, OTT 가입 없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이에 방송 콘텐츠 이용료가 비싼 북미권을 중심으로 FAST가 떠오르는 중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앞다퉈 FAST 시장에 뛰어들고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IPTV 3사 모두 FAST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 스마트TV를 플랫폼으로 삼고 FAST 채널 수를 각각 3,500개와 4,000여 개까지 늘렸어요. 최근에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들도 자사 광고 플랫폼에 FAST 채널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요. 2027년에는 전 세계 FAST 시장 규모가 120억 달러(17조 원), 이용자 수는 11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FAST 산업을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창구로 인식하고, 진흥 정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K-콘텐츠를 공급하는 FAST-TV 채널이 안착될 경우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 '트럼프 라운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트럼프 라운드는 2025년 8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된 세계 무역 질서를 의미합니다. 즉,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이 선언된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는 관세를 기본으로 한 제조업 보호 중시 전략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어요. 턴베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역 이름으로,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곳입니다. 그는 "(턴베리 합의는)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적 합의"라며, "턴베리 체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구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15%의 관세를 받아들였다"며 "한국은 비시장 경쟁에 직면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요.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Happy Workplace
행복한 일터

인재양성소 16
Jump Up!
새로운 출발선에서, 더 큰 성장을 위한 각오

컬처한스푼 20
삼정인이 추천하는
인생 드라마는?

마음온도+ 22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경제금융 멘토!
'배움의 다리'

이동규의 두줄칼럼 24
인생 최고의 자격증

心 Care 26
수치심에서 노래로 :
정신건강의 날에 다시 쓰는 치유의 언어

Samjong News 28
AI Summit 2025 外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FY2025 승진자를 만나다!

Jump Up!
새로운 출발선에서, 더 큰 성장을 위한 각오

새로움은 늘 마음에 설렘을 안겨준다. 새 계절, 새 다짐, 새 출발, 그리고 새로운 직급. 삼정KPMG는 지난 8월 27일 FY2025 정기 승진자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10월 1일부터 새 직급의 옷을 입은 삼정인을 만나 승진의 소감과 새롭게 세운 목표와 각오를 들어보려 한다.

문종우 Director (Deal Advisory1)

삼정KPMG에서 10년간 열정을 다하며 '초심불망(初心不忘)'의 자세로 달려온 문종우 이사입니다. 이번 승진자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많은 분들의 따뜻한 축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이사'라는 직급이 주는 무게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해하고 훌륭히 수행해,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영국 파견 시절, PRA와 FCA로부터 NH농협은행 런던지점 설립 허가를 받는 장기 프로젝트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최근 NH농협은행이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아 34년 만에 한국계 주요 은행으로서 영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남다른 뿌듯함과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유연하게 배우는 태도로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정다운 S.Manager (Tax3)

육아휴직 후 복직이라는 전환점을 지나 다시 일터에 돌아와 이 기회를 얻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속에서도 저를 믿고 함께해준 동료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복직 이후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협력'과 '소통'의 힘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이번 승진을 계기로 더 넓은 시야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재무 검증을 넘어 조직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신뢰받는 선배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회계사로서 기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로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바, 균형 잡힌 경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회복력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준 삼아 커리어를 설계하고, S.Manager로서 더욱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며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강원재 Manager (CM1)

신입 회계사로 입사해 매니저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본부장님과 파트너님들, 그리고 함께해준 선후배님들 덕분입니다. 기회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진은 기쁨과 함께 큰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변화와 도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성장 키워드는 'Attitude'와 'Relationship'입니다. 회계사로서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관계를 통해 제가 쌓아온 전문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재무제표 검증에 머무르지 않고,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에 실질적 가치를 더하는 전략적 조언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성장이 클라이언트와 조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겠습니다.

유소연 Manager (SG)

첫 사회생활을 삼정KPMG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매니저가 되었네요! 입사 당시 회사 문화부터 업무 수행 방식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던 과장님과 매니저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좋은 본부원들과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었기에 매니저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에게 든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입사 후 3년간 기업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하는 내부체계 수립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신입에서 과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틀을 다지는 단계부터 체계가 자리 잡아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저 역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후회 없이 만족도 있게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려운 목표일 수 있지만, 매니저로서 팀원들과 주도적으로 협력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인이 추천하는 인생 드라마는?

삼정인들이 함께 나누는 문화 콘텐츠로 우리만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컬처한스푼'. 이번 호의 주제는 '삼정인이 추천하는 인생 드라마'이다. 삼정인에게 깊은 울림을 준 인생 드라마는 무엇일까?

*이미지 출처: 각 방송사 공식 포스터

부모님과 공감하며 즐기는 국민 명작!
〈허준〉(1999)

이슬기 과장 (BD&Markets)

단순한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 '성실함과 헌신이 결국 길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작품입니다.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환자를 향한 진심 하나로 의학의 길을 완성해가는 허준의 모습은 회사 생활에서 매일 부딪히는 과제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다."라는 명대사는 회사에서 동료와 협업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성과만큼이나 서로를 향한 믿음과 배려라는 생각을 일깨워줍니다.

평온을 얻고 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2022)

이영빈 Senior (CM1)

제주도를 배경으로 여러 인물들의 삶과 상처,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낸 옴니버스 드라마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겪는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며 극복하는 장면들은 힐링을 안겨 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어.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잘하는 거야."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이 드라마를 보면 마음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고 사람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몰입형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2008-2013)

추대호 Manager (IT Audit)

평범한 화학 교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특히 "I am the one who knocks!"라는 대사는 주인공 월터 화이트의 변화를 상징하는 명장면이자 인생 드라마로 꼽는 이유입니다.
스토리 전개, 연기, 연출 모두 압도적이라 보는 내내 몰입하게 됩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경계, 인간의 욕망과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완생을 향해 나아가는 삼정인들에게
〈미생〉(2014)

류휘정 Associate (B&F1)

지난해 신입 회계사로 적응하느라 바빴을 때 아버지 추천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땐 그냥 지나가던 장면들이 이젠 마음 깊이 와닿더라고요. 어느 날은 장그래 같고, 또 어떤 날은 장백기 같은 제 모습이 보일 때, 예전엔 보이지 않던 드라마 속 인물들의 고군분투가 눈에 선히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생〉을 인생 드라마로 꼽으시며, '버텨서 완생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10년 뒤 회사에서 다른 위치가 되었을 때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기도 합니다. 장그래도, 오상식도 공감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응원하는 드라마 〈미생〉을 추천 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칠 때 위로받고 싶다면
〈눈이 부시게〉(2019)

한수진 S.Senior (B&F2)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어느 순간에는 보잘 것 없어보이는 내 삶도 눈이 부셨다는 걸, 그리고 지금은 그저 지나칠 뿐인 삶의 몇몇 장면들이 먼 미래에 돌아보면 눈이 부실 순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서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도전에 지쳤다면 꼭 봐야 할!
〈스토브리그〉(2009)

박경민 직원 (ITS)

"남들이 비웃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라도 안 배우면 누가 저한테 알려줍니까? 그럼 사람들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1년 뒤에도 야구 모르는 게, 그게 진짜 창피한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자세가 진짜 용기이며,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해 배움을 멈추는 것이야 말로 한계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에 지치거나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희망을 주는 이 드라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든 가정의 애순이, 관식이를 위한
〈폭싹 속았수다〉(2025)

권낙원 Manager (Deal Advisory1)

인생의 서사를 잔잔하고 서정적인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어 공감하기 좋은 포인트가 많았고 매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여덟 엄마는 엄마를 잃고 엄마가 됐고, 열아홉 아빠는 금메달 대신 금명이 아부지가 됐다. 그들의 봄은 꿈을 꾸는 계절이 아니라, 꿈을 꺾는 계절이었다. 그렇게도 기꺼이." 이 대사가 유독 기억에 남네요. 부모가 되어 자신의 꿈보다는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두 주인공의 모습이 언젠가 제 삶에서도 마주할 순간 같아 공감되었습니다.

10번을 봐도 또 정주행하고 싶은 드라마
〈또 오해영〉(2016)

김은미 S.Senior (Tax6)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사랑과 오해, 그리고 성장을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 내가 여전히 애틋하고 잘 되길 바래요."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가혹해지기 마련인데, 이 대사에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명대사라 생각합니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사랑나눔봉사단을 소개합니다!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경제금융 멘토! '배움의 다리'

삼정KPMG는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문화재 보호·아동 멘토링 등 총 8개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립준비청소년 및 북한이탈청소년 경제 금융 멘토링을 지원하는 배움의 다리 봉사단을 소개한다.

놀이를 통해 경제 배우고, 성장 지원

'배움의 다리'는 그룹홈 아이들과 경제 체험 놀이 활동을 함께하는 봉사단으로, FY2025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본부와 직급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경제를 배우고, 또 배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배움의 다리는 격월로 토요일 오후마다 정기 모임을 진행한다. 활동 테마와 운영은 봉사단원들이 직접 정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저축 등 기초 경제 개념을 알려주며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지원한다. 올해 4월, 6월, 8월에는 물건 구매, 화폐박물관 견학, 요리 활동 등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왔다.

마음의 따스한 온기를 PLUS!

박정아 S.Consultant 제가 아는 것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특히 우리 봉사단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봉사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 봉사를 마친 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껴요.

김정은 Consultant 아이를 좋아하고, 교육 봉사에 관심을 둔 저는 봉사단 활동을 이어갈수록 그 시간들이 매우 소중하게 다가와요. 삶에 새로운 활력도 생겼죠. 일이나 취미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는 또 다른 특별한 행복을 느껴요. 특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주는 아낌없는 애정과 봉사단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쌓아가는 유대감이 큰 힐링이 됩니다.

다양한 테마로, 행복한 추억 만들어!

김민주 Manager 우리 봉사단은 봉사 기획과 진행을 직접 고민해서 진행 중이에요. 최근에 진행한 활동은 아이들과 함께 예산을 세워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활동이었어요. 예산과 물가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함께 요리를 완성하는 성취감을 얻는 것이 목표였지만,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리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김서윤 대리 저는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고1 아이를 맡게 되어 걱정과 긴장 속에서 활동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 활동 주제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계획을 세워 선물이나 필요한 물건 쇼핑하기'였어요. 아이는 함께 지내는 형, 동생들과 나눠 먹을 과자를 주저 없이 골랐고, 관심 있는 언어 관련 책은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한참 고민한 끝에 구입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그룹홈에서 지내는 아이들도 주변을 잘 챙기고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하고 제 평소 모습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최재영 S.Analyst 저는 아이들과 화폐박물관 체험을 함께 했는데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새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작은 관심과 시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 함께 아이들이 편히 건너갈 다리가 되어주기를!

고명희 Manager 두 달에 한 번씩 학생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제게 늘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을 줍니다. 저 혼자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남기기에는 아쉬울 만큼 값진 시간이기에, 더 많은 삼정인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봉사에서 느끼는 보람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해요.

이진호 S.Consultant 최근에 봉사단에 참여하게 된 사람으로서, 법인에서 이런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도, 또 저 자신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삼정인들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연주 Manager 사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주 크지 않을지도 몰라요. 짧은 시간이더라도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고, 그 경험이 아이들의 마음 한편에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움의 다리'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보람을 삼정인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배움의 다리' 봉사단과 함께해요!

올해 12월까지 총 3회의 정기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은 제과제빵, 11월은 예산에 맞춘 물건 구매, 12월에는 경제 관련 보드게임 및 송년회로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입 문의: RC 김민주 Manager (mkim153@kr.kpmg.com)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인생 최고의 자격증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고 대답한다. 〈능력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라〉는 항목이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 말하는 사회생활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 상위에 꼽히는 이유다.

콜드 리더(Cold Reader)

실제로 조직 통증 원인의 대부분은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 소통(疎通)의 문제다. 우리 말에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한다. 따라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핵심은 아니다. 소통에서 빚어지는 문제의 대부분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말하는 태도(말투, 어감, 음성 등)에 기인한다. 결국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부부싸움의 대부분도 말 싸움이고 보면, 사실 말 공부가 제일 필요한 공부다.

이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협상이나 프리젠테이션 현장에서 처음 보는 상대의 심리나 성향을 빠르게 간파하고 공감하는 전문가를 가리켜 '콜드 리더(Cold Reader)'라고 한다. 이들의 특징은 언어구사는 물론 진정성도 겸비하여 뛰어난 설득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콜드 리딩은 비언어 정보, 포괄적 질문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내 속을 어떻게 알았지?"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기술로 사전에 정보를 미리 수집한 다음 활용하는 '핫 리딩(Hot Reading)'과 구별된다.

참고로 협상과 설득의 고수들 사이에 잘 알려진 '프렙(PREP)' 이론을 소개한다.

- Point(강조): 짧고 명료한 결론
- Reason(이유): '왜냐하면'을 통한 근거 제시
- Example(예시): 사례
- Point(강조): 결론의 반복

즉, 대화 가장 첫 부분에 짧고 명료한 결론을 배치한 뒤 곧바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실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를 제시해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처음 말한 결론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한다.

말과 글의 차이

라틴어 속담에 "말은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Verba volant, scripta manent)"라고 했다. 일단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어 한다.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글 쓰는 것이다.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면 얼마나 좋을까? 우선 두 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글은 엄청 못 쓰고, 말은 그다지 잘 못해도 글은 일필휘지인 사람도 있는데 이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회로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말이 된다고 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글은 피를 잉크로 찍어 쓰는 일이고, 말은 내 영혼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동양학 최고봉 노자 또한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로 인한 오류를 경계했다. 그는 〈도덕경〉에서 '知者不言 言者不知(지자불언 언자부지)', 즉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역설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말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언어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들은 어려서부터 "패가망신하는 원인의 80%가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이다"라고 가르친다. 성경에서도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한다"고 쓰여 있다. 말 값이 떨어지면 자신의 인격도 바닥으로 추락한다.

4가지 타입의 인간

한편 대화 방식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크게 4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유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하나 되는 것이 있을 리 없다.

둘째,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분 좋게 말하는 유형이다. 주로 간신이나 혈액형이 ABU형인 사람들이다.

셋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은 옳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유형이다. 특히 문제는 지식인 계층 또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수가 많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사회지도층이란 사회의 지도가 필요한 계층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마지막으로 필자가 살면서 밝혀낸 대화의 황금 법칙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것이 결국 듣고, 말하고, 쓰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 부럽지 않은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저자

국내 저명한 칼럼니스트(조선일보, 국제 PEN클럽 정회원)이자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다. 기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및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 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수치심에서 노래로 : 정신건강의 날에 다시 쓰는 치유의 언어

누군가에게 내가 겪은 잘못이나 아픔, 상처를 솔직히 털어놓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고립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호에서는 수치심을 숨기지 않고 마주했을 때 어떤 힘이 발휘되는지, 심리 상담사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려 한다.

*출처: Netflix

Profile
설진미
삼정KPMG
전임 심리상담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최근 미국정신의학회 신문 Psychiatric News 2025년 9월호에 실린 셀만 아지즈 미르(Sehlman Aziz Mirza) 박사의 글이 눈길을 끕니다. 〈K-Pop Demon Hunters〉라는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현대인의 수치심을 분석한 칼럼입니다.

미르 박사가 주목한 것은 주인공 '루미(Rumi)'입니다. 이 작품에서 세계적인 K팝 그룹 'HUNTR/X'는 악마 사냥꾼으로서 음악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지켜내는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그룹의 멤버인 루미는 남몰래 끔찍한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마였던 탓에, 그녀의 피부에는 숨길 수 없는 악마의 빛나는 패턴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루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킬까 두려워 동료들과 친밀한 자리를 필사적으로 피하고, 결국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목소리마저 억누르게 됩니다.

미르 박사는 여기서 수치심의 본질을 짚어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수치심은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깊은 자기혐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루미의 수치심은 자아를 분열시키고, 진정한 자기를 숨기며, 진정성 대신 가면을 택하게 만듭니다. 루미의 비밀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정서적 억압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이야기인 것입니다.

루미의 이야기는 비단 판타지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장인에게 수치심은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사소한 실수,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받은 상사의 질책, 동료의 성과와 비교되며 느끼는 초라함. 이런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넘어섭니다. 죄책감이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후회라면,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결함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총체적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감추려 할 때 시작됩니다. 수치심을 숨기는 행위는 우리 영혼에 빛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하며,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가면을 쓰는 대가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립니다.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유능하고 완벽한 직원의 가면을 쓰고, 실수하지 않는 인간을 연기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은 만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결국 정신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둘째, 성장을 멈추는 대가를 치릅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는 족쇄입니다. 실패가 곧 존재의 실패로 느껴지기에, 도전적인 과제를 피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침묵을 택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연결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수치심은 '나만 이렇다' 깊은 고립감을 동반합니다. 나의 약점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기에 동료와 유대를 맺기 어렵고, 피상적 관계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협업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주인공 루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비밀과 상처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음악의 언어로 표현해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고 타인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는 수치심을 다루는 중요한 심리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억압하고 회피할수록 괴물이 되어 우리를 잠식하는 감정을,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재구성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제하고 의미를 부여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팀 회의에서 '사실은 나도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실수를 했다'고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것, 동료의 힘든 표정을 알아채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건강 문제 역시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력으로 이겨내라'는 편견 때문에 망설여지지만,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상담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치심이라는 독백을 나눔과 연결이라는 대화로 바꿀 때, 그 파괴적 힘은 비로소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됩니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우리 자신과 조직을 돌아봅시다. "나는 수치심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우리 조직에서 실패와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 말입니다. 수치심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애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치심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누며 새로운 이야기로 바꿔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SAMJONG · NEWS

AI Summit 2025 …
‘금융과 공공의 AI 혁신: 활용 사례와 실무 이슈’ 주제로 열려

삼정KPMG가 지난 9월 16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내 기업 4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과 공공의 인공지능(AI) 혁신: 활용 사례와 실무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개최된 ‘제1차 삼정KPMG AI Summit’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및 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실무 이슈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삼정KPMG는 금융 및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AI 에이전트와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업의 핵심 업무에 AI를 접목해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가 금융과 공공부문에서 축적한 최고의 종합 컨설팅 역량을 토대로 실제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데이터, 플랫폼 전략 등의 핵심 솔루션과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첫 세션에서 삼정KPMG AI 센터장 이동근 전무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AI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프로세스, 조직, 서비스 제공 모델, 기술, 성과지표,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본법 등 규제 대응 및 기업의 AI 신뢰 구축을 위한 AI 거버넌스 체계, 리스크 관리,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정승연 상무는 AI 에이전트 활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 AI 플랫폼 구축 전략을 발표했고, 양현석 전무는 비즈니스 가치를 위한 생성형 AI의 실무 적용 사례를 시연했다. 또한, 여준형 전무는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최종원 상무는 AI 활용의 성패가 데이터 품질과 관리 체계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이 AI 친화적인 데이터 관리 전략을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최진영 상무는 기업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AI 에이전트 최적화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및 개선을 위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설계되고 적용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했다.
한편, 김진귀 부대표는 “삼정KPMG는 AI 기술 역량과 더불어 축적된 다양한 산업 및 업무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AI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ntact: AI 센터 이동근 전무(센터장) tongkeunlee@kr.kpmg.com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KPMG 독일, 한국 기업 위한 특별 초청 행사 개최
김교태 회장 및 유럽 파견자 참석 … 한국 기업 지원 방안 논의

독일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을 위한 뜻깊은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KPMG 독일은 한국 기업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며,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 9월 4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기업만을 위한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 22개 사, 30여 명의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KPMG 독일의 CEO 마티아스 슈멜처, International Business 총괄 파트너 안드레아스 글룬츠, Korea Practice를 이끄는 바바라 질리히를 비롯해 한국 기업을 담당하는 모든 독일 파트너들이 함께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강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는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이 참여했으며, 독일을 비롯해 영국·폴란드·체코 등 유럽 각국에서 활동 중인 삼정KPMG 파견 전문가들도 함께해 유럽 지역 내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사가 열리기 전, 김교태 회장은 현대자동차 유럽법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독일법인, LG화학 유럽법인을 방문해 현지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KPMG가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초청 행사에서는 한국 기업 경영진들이 독일 파트너들과 직접 교류하며, KPMG 독일이 한국 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향후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KPMG 독일 리더십이 직접 주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삼정KPMG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Global Korea Pract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30명 이상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앞으로도 KPMG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Contact: KPMG 독일 Korea Practice 김유리 이사 youleekim2@kpmg.com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재무자문부문 조직 개편 … 본부 통합으로 시너지 창출

삼정KPMG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고객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무자문부문(Deal Advisory)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최우선 고객 지원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인수합병(M&A), 실사(TS), 밸류에이션, 구조조정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고 조직 구성원에게는 더욱 다양한 업무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무자문부문은 기존 10본부 체제를 6본부 대조직 체제로 재편해 본부별 전문성을 결집하고 통합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은 산업별·고객군별 특성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했다.

1본부는 박영걸 전무가 이끌며 대기업 고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크로스보더 자문 역량을 집중한다. 양진혁 전무가 책임을 맡은 2본부는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조정, 회생 지원 자문을 비롯해 금융업 자문도 특화했다. 3본부는 김진원 부대표의 리더십 아래 사모펀드(PEF)를 중심으로 폭넓은 M&A 자문을 제공한다.

김광석 부대표가 이끄는 4본부는 에너지·인프라·환경 산업 전문성을 한데 모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규 투자 검토 등 전 주기에 걸친 자문을 지원한다. 5본부는 원정준 부대표가 맡아 오너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M&A 자문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진형석 전무가 선도하는 6본부는 상업용 부동산, 시니어 하우징, 데이터 센터 등 부동산 전 분야에서 토털 서비스를 자문한다.

한편,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조직 개편을 계기로 ▲화학·철강 산업을 포함한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자문 ▲인공지능(AI)·방산·바이오·K-콘텐츠 등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 영역의 딜 소싱 ▲사모펀드 대상 전 라이프사이클(실사·가치평가·PMI·밸류업·매각자문 등) 자문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재무자문부문 조직 개편

- **Deal Advisory1 (본부장: 박영걸 전무)**
  대기업 고객 전방위 지원, 크로스보더 자문
- **Deal Advisory2 (본부장: 양진혁 전무)**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조정, 회생 지원 자문을 비롯해 금융업 자문 제공
- **Deal Advisory3 (본부장: 김진원 부대표)**
  사모펀드(PEF)를 중심으로 폭넓은 M&A 자문 제공
- **Deal Advisory4 (본부장: 김광석 부대표)**
  에너지·인프라·환경 산업 전문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규 투자 검토 등 전 주기에 걸친 자문 지원
- **Deal Advisory5 (본부장: 원정준 부대표)**
  오너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전방위적 M&A 자문
- **Deal Advisory6 (본부장: 진형석 전무)**
  상업용 부동산, 시니어 하우징, 데이터 센터 등 부동산 전 분야에서 토털 서비스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년 제3차 WCD-KPMG ESG 연구회’ 개최 … 상법개정 논의가 주주 행동주의와 이사회에 주는 시사점

삼정KPMG와 세계여성이사협회(WCD Korea)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ESG 연구회’가 9월 1일 삼정KPMG 본사 퍼포즈룸에서 열렸다. 이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찬 교수는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주주행동주의와 이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주주행동주의의 정의와 이사회 대응 효과,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본부장은 ‘새로운 유형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K-주주행동주의의 정의와 주요 사례, 진화 및 전망, 기업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기업 대응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한편, WCD-KPMG ESG 연구회는 삼정KPMG ESG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 ESG 이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분석을 제공하며, 주요 기업의 이사로 활동하는 WCD 회원들의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 Contact: ICE3본부 강인혜 전무 ikang@kr.kpmg.com/ IM4본부 김연정 상무 yeonjungkim@kr.kpmg.com

삼정포럼, ‘AI 혁명과 한국의 발전 전략’ 주제로 진행

삼정포럼이 9월 17일 삼정KPMG 교육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안현호 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AI 혁명과 한국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AI 혁명의 현재 위치와 전망을 짚어보고, AI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 전 대표이사는 AI가 더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문명, 패권, 주권, 인간 가치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제조업과 데이터 주권이라는 강점을 살려 ‘플랫폼 아키텍트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은 창의성과 연결력을 기반으로 AI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상속 어드바이저 어워즈 2025’에서 ‘베스트 가업승계 어드바이저’ 수상

삼정KPMG가 지난 9월 5일 한국경제신문사 17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상속 어드바이저 어워즈 2025’ 시상식에서 ‘베스트 가업승계 어드바이저’ 상을 수상했다. 삼정KPMG는 기업집단 승계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하고 ESG 요소를 반영한 차별화된 승계 전략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삼정KPMG 한원식 부대표는 “귀한 시상식 자리를 마련해주고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 가업승계를 위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8회 대한민국 회계대상’ 개최
대상 - SK 케미칼 & 최우수상 - 현대해상·E1·HMM 선정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제8회 대한민국 회계대상’이 9월 2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상은 SK케미칼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현대해상·E1·HMM이 선정됐다. 매일경제 회계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외부감사법 적용 기업 중 삼정·삼일·안진·한영회계법인(Big4)이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했으며, 심사위원장은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맡았다. 이 과정에서 삼정KPMG가 추천한 E1이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재무제표 신뢰성 증대를 위한 회계 전문 인력 강화, 외부감사 투입 시간 증가 및 회계 전문성을 최우선시한 감사위원회 운용 등을 통해 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경영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PEOPLE FIRST! ‘신입 회계사 오픈하우스’ 행사 진행

신입 회계사 오픈하우스 행사가 지난 9월 4~5일, 11~12일 총 4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픈하우스는 법인에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과 가족, 지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입 회계사들의 입사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 회계사와 가족, 지인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피스 투어를 통해 삼정KPMG의 업무 환경을 체험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Head of Audit 및 감사 본부장이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리크루팅 TFT 리더가 회사 소개와 Q&A 세션을 진행했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FY25 New Manager & S.Manager & Director 승진자 교육 진행

삼정KPMG는 FY25 승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지난 9월 1일 New Manager 교육 및 축하 만찬이 그랜드 인터콘티넨탈에서 개최됐다. 셀프 리더십, 협업 의사결정, 문제 해결과 팀 시너지 등 각자 희망하는 주제를 선택해 교육을 수강한 후, CEO의 승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축하 만찬이 진행됐다.

8월 29일에는 New S.Manager 승진자 교육이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진행됐다. 첫 세션으로 고객의 문제 해결과 성장을 이끄는 New Way of Working을 주제로 HK & Company 강형근 대표의 강연이 열렸으며, 이어 프랑스 해외연수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승진자들이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경험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프랑스를 깊이 이해하는 특강과 AI 툴을 활용해 스마트하게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실습 시간도 마련됐다. S.Manager 승진자들은 9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5차에 걸쳐 각 차수별 2주간 프랑스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끝으로 김교태 회장이 승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교육이 마무리됐다.

9월 19일에는 New Director 승진자 교육과 축하 만찬이 열렸다. New Director 승진자들은 New Director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Transitional Leadership 세션과 You & Me 성찰 리더십 세션을 통해 리더십을 되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했으며, 삼정KPMG BD 전략 및 KPMG Way 세션에서는 법인의 BD(Business Development)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받았다. 마지막으로 김교태 회장의 축하 메시지를 통해 승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각자의 포부를 다짐했으며, 이어진 축하 만찬에서 승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삼정KPMG 오피스 방문

지난 9월 25일, 일본 와세다대학교 상학부 교수와 학생 40여 명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정KPMG 오피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와세다대학교 상학부 국제 교육 프로그램(GMP)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GMP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 연수의 일환으로 삼정KPMG를 찾았다.
삼정KPMG는 학생들을 환영하며 회사 전반과 주요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학생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 Deal Advisory와 Consulting의 전문가가 피드백을 주는 유익한 세션도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스마트 오피스를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www.kpmgacadem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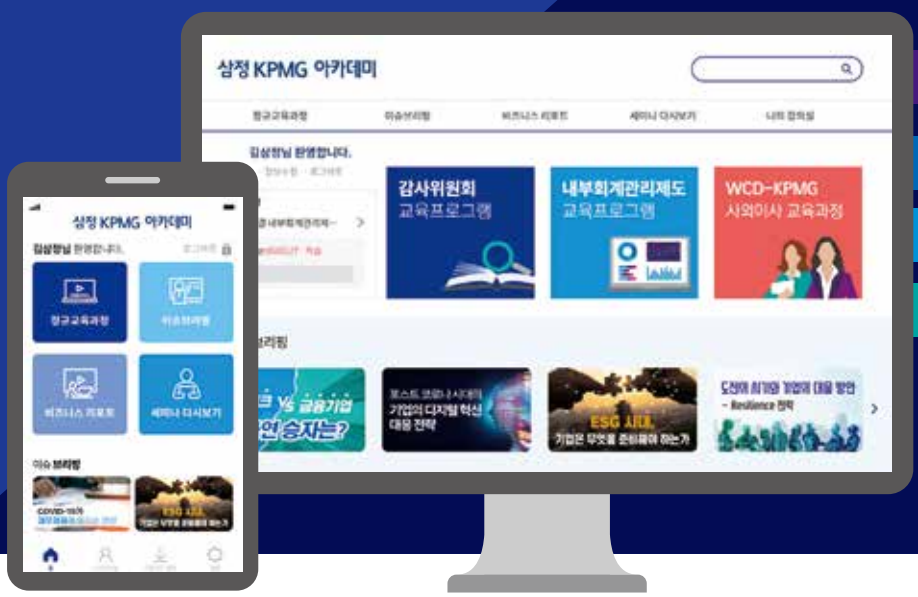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